

국어(한문 포함)

문 1. 다음 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의 목적은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과 인간 존엄성의 수호를 위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며, 스포츠의 가능성과 힘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열 살 때 남북 선수단이 올림픽 경기장에 동시 입장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스포츠의 힘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유엔 총회의 ‘올림픽 휴전 결의안’ 초안 승인을 통해 그때 목격했던 스포츠의 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①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권위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③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연설자의 공신력을 강조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문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사적인 필요가 사적 건축을 낳는다면, 공적인 필요는 다수를 위한 공공 건축을 낳는다. 공공 건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면서 사적 자본이 생산해 낼 수 없는 공간을 생산해 내어야 한다. 이곳은 자본의 논리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살피는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공공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배려하는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적 건축으로는 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공공 건축은 공적인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① 사적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 ② 사적 건축은 국민 다수의 보편적인 취향을 반영해야 한다.
- ③ 공공 건축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 ④ 공공 건축은 사적 자본을 활용하여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문 3.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서: 정국이 말이야.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해 주고 자기 혼자 공모전에 신청했더라.
채연: 글썸, 왜 그랬을까?
민서: 그러게 말이야. 정말 기분 나빠.
채연: 정국이라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야.
민서: 사정은 무슨 사정? 자기 혼자 튀어 보고 싶은 거겠지.
채연: 내가 지난 학기에 과제를 함께 해 봐서 아는데, 그럴 애가 아니야. 민서야, 정국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민서: 너 자꾸 이럴 거야? 도대체 왜 정국이 편만 드는 거야?

- ① 채연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민서를 설득하고 있다.
- ② 채연은 민서의 의견을 수용하며 원만한 갈등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 ③ 민서는 정국이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며 대화의 타협점을 찾고 있다.
- ④ 민서는 채연의 답변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며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문 4.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배의 돛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배를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게 한다. 별도의 동력에 의지하지 않고도 추진력을 얻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선도 별도의 동력 없이 먼 우주 공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우주 공간에도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들이 일으키는 바람이 있어서 ‘햇살 돛’을 만들면 그 태양풍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정의
- ② 분류
- ③ 서사
- ④ 유추

문 5. (가)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가 에번 코넬은 단편소설의 초고를 읽어 내려가면서 썬표를 하나하나 지웠다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썬표를 원래 있던 자리에 되살려 놓는 과정을 거치면 단편 하나가 완성된다고 했다. 강박증 환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치열한 문장가가 아닌가! 불필요한 곳에 나태하게 찍혀 있는 썬표는 글의 논리와 리듬을 망쳐 놓는다. 썬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가)의 문장을 쓰거나 썬표의 앞뒤를 섬세하게 짚게 하는 치밀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 ① 體肉之歎
- ② 聲東擊西
- ③ 苦盡甘來
- ④ 天衣無縫

문 6.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이번 연주회의 백미(百眉)는 단연 바이올린 독주였다.
- ② 그분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익장(老益壯)을 과시했다.
- ③ 신문문에 공모는 젊은 소설가들의 등용문(燈籠門)이다.
- ④ 우리 회사에는 미봉책(未縫策)이 아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문 7. 밑줄 친 말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그는 구멍 난 양말을 꼬매고 있다.
- ② 그는 자동차에 대해서 빠삭한 편이다.
- ③ 그는 나를 보고 계면쩍게 웃기만 했다.
- ④ 밥을 제대로 차려 먹기에는 어중된 시간이다.

문 8. ㉠ ~ ㉣을 활용하여 사례의 밑줄 친 부분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실현되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다음으로 어말 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 | 사례 | 분석 |
|-----------------------------|----------------|
| ① 형이 어머니를 잘 모시겠지만 조금은 걱정돼. | 어간 + ㉠ + ㉡ |
| ② 많은 사람들이 오갔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해. | 어간 + ㉠ + ㉢ |
| ③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셨을 텐데. | 어간 + ㉠ + ㉠ + ㉡ |
| ④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편지를 보내셨을걸. | 어간 + ㉠ + ㉠ + ㉢ |

문 9. 밑줄 친 단어가 다의어 관계로 묶인 것은?

- ① 무를 강판에 갈아 즙을 내었다.
고장 난 전등을 새것으로 갈아 끼웠다.
- ② 안개에 가려서 앞이 잘 안 보인다.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
- ③ 긴장이 되면 입술이 바짝바짝 탄다.
벽난로에서 장작불이 활발 타고 있다.
- ④ 이 경기에서 지면 결승 진출이 좌절된다.
모닥불이 지면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문 10. 다음 시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숨아 세 한숨아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장즈 세살장즈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져귀 수돌져귀
빅목결새 쪽닥 박고 용(龍) 거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츠엿느디
병풍(屏風)이라 덜걱 저븐 족자(簇子)라 디디글 문다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즈 못 드러 흐노라
— 작자 미상, 「한숨아 세 한숨아」 —

- ① 부사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존재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의인화한 시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유사한 종류의 사물들을 열거하여 시적 대상을 향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문 1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찌 해남 대흥사에 있나? 서울 조계사에 있어야지 ……” “에이, 대흥사도 대찰(大刹)이에요.” “그래도 중들의 중앙청은 역시 조계사 아닌가?” “스님들에게 중앙청이 어디 있어요? 그거 싫다고 떠난 사람들인데.” “그래서 가짜가 많다고 ……” “네?” “책은 많이 썼는가?” “책이라뇨?” “스님들이 책 많이 쓰지 않나, 요즘?” “에이, 지명 스님은 그런 거 안 써요.” “그러면 텔레비에는 나와?” “텔레비에도 안 나와요. 지명 스님,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라디오에는? 요새는 불교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도 생겼다는데?” “나대는 스님이 아니라니까요.” “에이,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스님이 아니야.” “네?”
그는 내 인내를 시험해 보기로 작정했던 모양인가? 이유 없이 따귀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 (중략) …
나는, 정말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세상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중생을 제도하는 스님도 있고 더 잘 제도할 수 있도록 그런 스님을 가르치는 스님도 있어요. 텔레비전 시청자나 라디오 청취자에게 적합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나갈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그것은 못 나간 사람들이 만들어 낸 변명이야.”
— 이윤기, 「숨은그림찾기1—직선과 곡선」에서 —

- ①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조계사’와 ‘대흥사’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다.
- ②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책’을 쓰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스님’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 ③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지명 스님’은 ‘못 나간 사람들’에 속한다.
- ④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청’에 있는 스님들은 ‘중앙청’이 아닌 곳에 있는 스님들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문 1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거에 예술은 고급 예술만을 의미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의 작품을 귀족과 같은 상층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서 감상하기만 했다. 그러나 사진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명으로 기존의 걸작품이 복제되어 인테리어 소품이나 낭만적인 엽서로 사용되면서 대중도 예술 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원작에 버금가는 위작이 만들어지고, 게다가 일상의 생필품처럼 사용되는 작품도 등장하게 되면서는, 대중은 더 이상 예술 작품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소비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예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전까지는 예술 작품이 진본성, 유일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기술 복제 시대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원에 타도록 설치된 그네를 예술 작품이라 하는 것과 같이 일상의 물품 역시 과거와 달리 예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① 복제와 관련된 기술의 발명은 예술을 둘러싼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 ② 기술 복제 시대 전에도 귀족은 예술 작품을 실용적으로 사용했다.
- ③ 기술 복제 시대에는 진본성을 갖추는 것이 예술 작품의 필수 조건이 되지 못했다.
- ④ 기술 복제 시대 전에는 인테리어 소품이 예술에 포함될 수 없었지만 기술 복제 시대에는 포함될 수 있었다.

문 13.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검은색 옷과 흰색 옷을 입은 6명이 두 개의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주고받는 동안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지나가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주고받았는지 세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패스 횟수에 대해서는 각자의 답을 말했는데, 동영상 중간 중간에 출현한 고릴라 복장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참가자들이 패스 횟수를 세는 데 집중하느라 1분이 채 안 되는 동영상 가운데 9초에 걸쳐 등장하는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A는 이 실험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했다. (가).
이 실험 결과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도록 권하는데, 밝은색 옷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고, 덕분에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의 (나) 없기 때문이다.

- ① (가): 인간의 인지는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 충분조건일 수는 있어도 필요조건일 수는
- ② (가): 인간의 인지는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일 수는
- ③ (가):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
(나): 충분조건일 수는 있어도 필요조건일 수는
- ④ (가):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
(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일 수는

문 18.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는 행위의 적극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A는 자율 방법대원들에게 이 일의 자원 동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과 타인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그리고 둘 다 말한 사람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그 후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2개월간 방법 순찰에 참여한 횟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 모두가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순찰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자 중 타인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의 순찰 횟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는 이를 토대로 (가) 고 추정하였다.

- ① 자기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은 타인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보다 행위의 적극성이 높다
- ② 타인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보다 행위의 적극성이 높다
- ③ 자기지향적 동기는 행위의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 ④ 자기지향적 동기가 행위의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타인지향적 동기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문 19. 갑 ~ 병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가족이 아닌 이들과 대화할 때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동네’라는 표현과 비교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 ‘우리 동네’는 화자의 동네이기도 하면서 청자의 동네이기도 한 특정한 하나의 동네를 지칭하잖아. 그런 식이라면 ‘우리 엄마’는 형제가 아닌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엄마를 지칭하는 이상한 표현이 되는 셈이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우리 엄마’는 잘못된 어법이고 ‘내 엄마’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라고 할 수 있어.

을: 청자가 사는 동네와 화자가 사는 동네가 다른 경우에도 ‘우리 동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물론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청자가 사는 동네와 다른, 화자가 사는 동네가 되겠지. 이 경우 ‘우리 동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말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 정도를 의미할 거야. 갑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 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

병: ‘우리 엄마’와 ‘내 엄마’가 같은 뜻을 갖는 것은 아니야. ‘내 동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동네’라고 하는 것은 동네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이겠지. 마찬가지로 ‘내 엄마’라고 하지 않고 ‘우리 엄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가족 공동체 속에서의 엄마를 생각하기 때문일 거야. 즉, 가족 구성원 중의 한 명인 엄마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지.

— <보 기> —

- ㄱ. 갑은 ‘우리 엄마’라는 표현이 화자와 청자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고 보는 입장이다.
- ㄴ. 형제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이 형과 동생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는 것은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 ㄷ. 무인도에 혼자 살아온 사람이 그 섬을 ‘우리 마을’이라고 말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병의 입장을 약화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문 20. A와 B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는 아동의 사고와 언어의 발달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2 ~ 3세경에 ‘자기중심적 언어’가 나타났다가 8세경에 학령이 되면서 자기중심적 언어는 소멸하고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한다고 주장한다.

B는 A가 주장한 자기중심적 언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성격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지닌다. A와 달리 그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구안하는 데 중요한 사고의 도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자기중심적 언어는 아동이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 나타나는데, 아동은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소리 내며 사고한다. 그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자연적 존재를 문화적 존재로 변모시키는 기능을 하며, 학령이 되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면화되어 소리 없는 ‘내적 언어’를 구성함으로써 정신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자기중심적 언어의 전(前) 단계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는 출생 이후 약 2세까지의 아이가 언어 이전의 ‘환상적 사고’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환상적 사고는 자신과 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신과 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의사소통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A는 이 단계의 아이가 보여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B의 경우 출생 이후 약 2세까지의 상호작용을 의사소통 행위로 판단한다. 그에 따르면 이때의 의사소통 행위는 타자의 규제와 이에 따른 자기규제가 작동하는 대화적 상호작용의 일종으로, 사회적 언어를 통해 수행된다.

B 역시 A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언어와 사고의 발달이 3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는 사회적 언어에서 출발하여 자기중심적 언어를 거쳐 내적 언어 순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 <보 기> —

- ㄱ. ‘자기중심적 언어’의 단계 전에 A는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B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 ㄴ. A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학령이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반면, B는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 ㄷ. A와 B는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